

-자고 하다

~하자고 하다 — 청유의 간접 인용

세 번째 간접 인용 형태입니다. -자를 바탕으로 하며, 네 가지 중 가장 간단합니다. 품사에 따른 구분도 없고 불규칙도 없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작 동사	-자고 하다	가다 → 가자고 해요
ㄹ 어간은 ㄹ 유 지	-자고 하다	만들다 → 만들자고 해요
부정	-지 말자고 하다	가지 말자고 했어요
시제	하다에 붙음	가자고 했어요
구어 준말	-재요	가재요
형용사	불가능	좋자고는 없음

■ 언제 쓰나요

-자고 하다는 모든 동작 동사 어간에 붙습니다. 형태 변화가 없고 ㄹ도 그대로 남으며, 앞에 시제를 붙이지 않고 시제는 하다에 붙입니다.

원래 어떤 표현이었던 인용된 제안은 이 형태가 됩니다. 같이 갈까요, 같이 갑시다, 같이 가자는 모두 같이 가자고 했어요.

부정은 늘 그렇듯 말대로 만듭니다: -지 말자고 하다.

구어에서는 -재요로 줄어듭니다: 가재요, 먹재요. -대요, -래요, -내요와 함께 이 네 가지 준말이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형태입니다.

■ 예문

- 1 친구가 같이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.
- 2 동료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요.
- 3 어머니가 저녁을 같이 만들자고 하셨어요.
- 4 그 얘기는 오늘 하지 말자고 했어요.
- 5 주말에 등산 가재요.
- 6 회의를 다음 주로 미루자고 했습니다.

■ 비교

-(으)라고 하다

명령은 듣는 사람에게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고, 제안은 말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. 한 음절이 그 차이를 결정합니다.

가라고 했어요. (나에게 가라고 함) / 가자고 했어요. (같이 가자고 제안함)

-(느)ㄴ다고 하다

평서문 인용은 사실을 전하고, 청유문 인용은 누군가가 하자고 제안한 것을 전합니다. 계획을 평서문으로 인용하면 행동하려는 사람이 달라집니다.

간다고 했어요. (그 사람이 간다고 함) / 가자고 했어요. (같이 가자고 제안함)

네 가지 준말

네 가지 간접 인용 형태를 모두 알았다면 구어 준말도 한 묶음으로 외워둘 만합니다.

-대요 (평서) / -래요 (명령) / -재요 (청유) / -내요 (의문)

■ 주의

✗ 친구가 같이 갑시다고 했어요.

○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.

인용할 때는 높임 정도와 상관없이 항상 기본 청유형으로 바뀝니다. 갑시다와 같 까요는 모두 가자고가 됩니다.

✗ 어제 친구가 같이 갔자고 했어요.

○ 어제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.

-자고에는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 과거는 끝의 하다에 붙입니다.

✗ 그 얘기는 하지 않자고 했어요.

○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.

부정 청유는 말다를 씁니다. 않다로는 제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.